****

**선교 활동 보고**

**평강의 씨앗을 뿌리다**

주위를 둘러보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많은 일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대화와 결정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복음과 교회 사명의 핵심입니다. 평화는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평화는 행함이지,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과 전 세계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중앙 아메리카 이주 선교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평화의 씨앗을 뿌린 카르멘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이주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웨인즈버러 장로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의 지원을 받는 새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랑의 빨래' 세탁 봉사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주 잊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캐롤린 비커리 목사는 "사람들은 세제, 청소용품 또는 개인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데 SNAP 혜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존엄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루크레티아와 남편 댄은 기독교적인 유럽 정부가 원주민이 점령한 땅을 차지할 종교적,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발견의 교리'의 의미와 지속적인 유산에 대해 직접 배웠습니다. 이들은 산타페 노회와 사우스웨스트 대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원주민 땅으로의 평화 여행 연구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루크레티아와 댄은 배운 내용을 교인들과 공유했고, 그 결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세컨드 장로교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교회에 필요한 수리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촌 선교 평화 특별 헌금에 대한 우리의 기부를 통해 우리는 단일 교회로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낌없는 지원은 미국장로교 전역의 교회들과 함께 전 세계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데 쓰일 것입니다. 우리 헌금의 25%는 교회 자체의 평화 증진과 화해 사역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25%는 지역에서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 중간 공의회에서 보유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중간 공의회가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한다면, 이것이 모여 큰 액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헌금을 당신과 당신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길에 바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일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